

CEO Information

2006.3.15 (제544호)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

목차

요약

I. 2000년 이후 투자흐름과 특징

II. 서비스산업 투자의 중요성

III. 서비스업 투자의 걸림돌과 활성화 방안

작성 : 정형민 수석연구원(3780-8387)
hyungmin.jung@samsung.com
김범식, 복득규 수석 외
감수 : 홍순영 연구위원(3780-8104)
serihsy@seri.org

《 요약 》

투자 부진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이 염려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대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당시 설비투자가 급감한 이후 실질설비투자 규모가 다시 1996년 수준을 넘어서는 데만 9년이 소요되었으며,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성장과 투자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현상까지 보인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실한 투자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투자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의 경우 투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공급과잉, 국내 투자비용 상승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투자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설비투자를 실시했던 전자산업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규모 증설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GDP 대비 49.3%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70%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경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들이다. 문화·관광산업도 한류가 확산되고 국내의 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 교통·운수나 통신·방송 서비스와 같이 이미 상당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거나 성숙기에 들어선 경우에도 디지털화나 산업간 융복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1.7배에 달하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길목에는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진입 및 입지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 편중된 각종 지원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국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대형화와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은 대부분이 내수산업이므로, 연금제도 개선이나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I. 2000년 이후 투자흐름과 특징

지난 5년간 설비투자가 정체

□ 설비투자는 1990~97년 중 연평균 7.8% 증가했으나, 2000~05년에는 연평균 1.1% 증가하는 데 그침

- 실질 설비투자 규모¹⁾가 96년 수준을 넘어서는 데만 9년이 소요
 - 실질 설비투자 규모: 77.8조원('96)→ 67.5조원('01)→ 78.2조원('05)
- 특히 경제규모 대비 투자수준은 계속 하락하여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실질 설비투자율²⁾: 13.8%('90~'97)→ 12.8%('00)→ 10.8%('05)

□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과 투자간의 연결고리가 약화

-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 때 투자도 확대되는 성장·투자간 연결고리가 강하게 작동
-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 도입, 기업 행태의 보수성 강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투자성향이 약화
 - 투자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³⁾: 1.34%p('90~'97) → 0.79%p('00 이후)

경제성장과 설비투자의 관계

- 추정식: 설비투자_t = 상수 + b₁국내총생산_{t-1} + b₂실질금리_{t-1}* + 오차_t
 *실질금리 = 회사채 유통수익률 - 생산자물가 증가율

기간	추정계수(표준오차)	
	b ₁	b ₂
1990~97년	1.34(0.13)	-0.004(0.009)
2000년 이후	0.79(0.15)	0.004(0.003)

¹⁾ 2000년 불변기준

²⁾ (실질 설비투자액 / 실질 GDP)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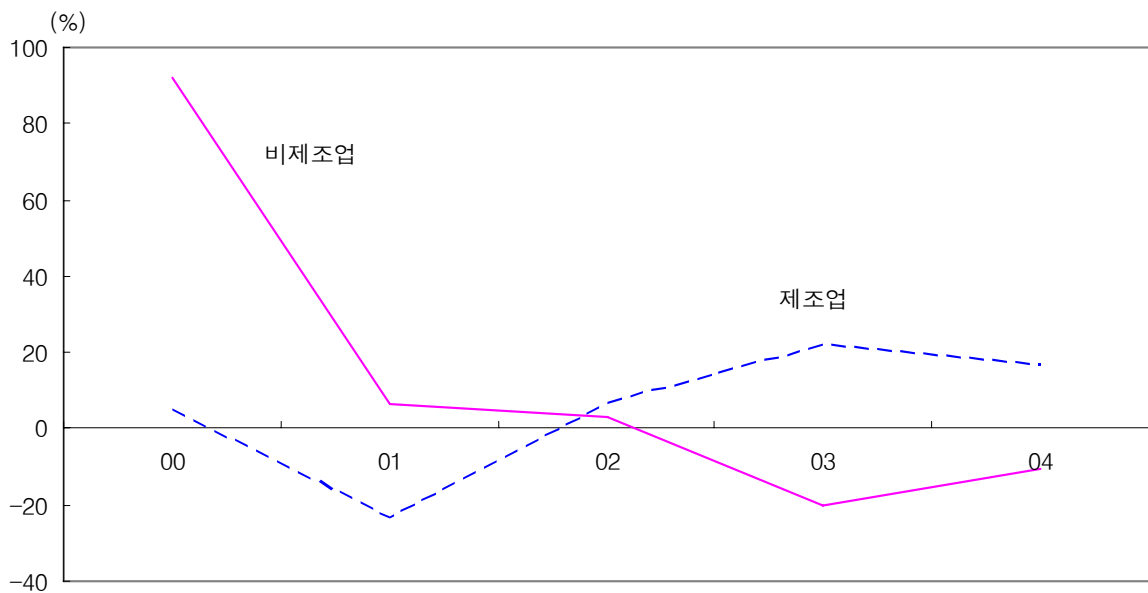
³⁾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할 때 유발되는 투자의 증가율

비제조업과 중소기업 투자가 위축

□ 2000년 이후 설비투자 부진은 비제조업 및 중소기업 투자 부진이 주요인

- 제조업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제조업 투자가 침체
 - 제조업 투자는 2003~04년 중 높은 수출증가율에 힘입어 2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 비제조업 투자는 2001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03~04년에는 내수침체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제조업 및 비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경상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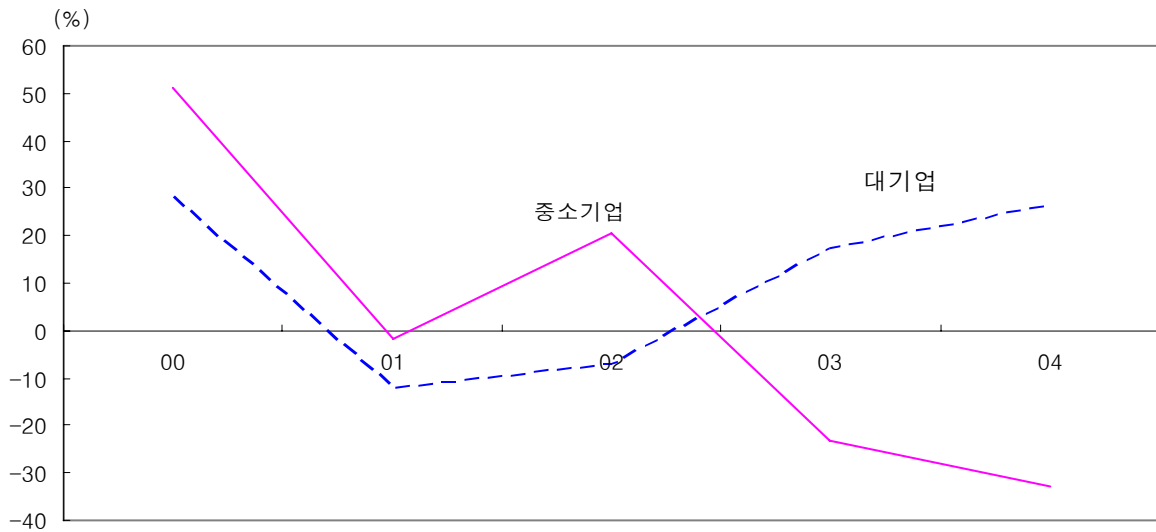
주 1: 제조업 설비투자액은 광공업 통계조사의 제조업 유형자산 투자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유형자산 연간증가액을 차감한 값을 사용

2: 비제조업 설비투자액은 국민계정 설비투자액에서 제조업 설비투자액을 차감해 추산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간 격차가 확대
 -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투자활동은 2003~04년 중 활발했으나, 중소기업 투자는 크게 감소(비제조업 투자패턴과 유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경상금액 기준)



주 1: 대기업 설비투자액은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상의 종업원 규모 300인 이상업체들의 설비투자액을 사용

주 2: 중소기업 설비투자액은 국민계정 설비투자액에서 대기업 설비투자액을 차감해 추산
자료: 한국은행 Ecos DB,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성장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가 요구

□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이 훼손될 가능성

-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동투입량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성장력 제고의 관건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
- 투자부진은 생산능력 감소 → 성장둔화 → 소득 감소 → 투자부진의 악순환으로 연결

□ 2005년 4/4분기 중 설비투자가 9.8% 증가하는 등 최근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있으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장기추세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

- 경제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부진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

II. 서비스산업 투자의 중요성

1. 제조업 투자의 한계

전통 제조업 투자 비중 하락 추세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철강, 화학 등 전통주력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과거 한국경제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이 투자를 주도
 - 외환위기 이전 철강산업과 화학산업 등이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내외를 차지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통주력 산업에서 설비투자 비중이 하락
 - 철강과 화학산업의 투자비중은 각각 80년대 12.0%, 11.7%에서 외환위기 이후 5.1%, 5.1%로 감소

전통주력산업의 설비투자 비중 추이

(%)

산업	1980~1989	1990~1997	1998~2004
철 강	12.0	9.0	5.1
화 학	11.7	9.4	5.1
정 유	2.3	3.6	1.3
조 선	0.5	2.0	1.3
자동차	6.4	6.6	6.7
합 계	32.9	30.6	19.5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 전통제조업의 투자비중이 약화된 것은 제조부문의 공급과잉, 국내투자 비용 상승, 해외투자 확대 등이 주요인

- 노사불안,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등으로 산업경쟁력의 추가 확보에 어려움
- 특히 최근 들어 전통제조업은 시장성숙이 가속되는 가운데, 통상마찰 가능성 확대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는 축소되고 해외투자를 선호

주요 산업의 국내설비투자 부진요인

산업	산업별 요인	공통 요인
조 선	설비투자절감형 , 통상마찰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확대 · 공급과잉 우려 · 국내투자비용 증가
철 강	신증설보다 합리화 투자 위주	
자 동 차	합리화 투자 위주, 내수시장 성숙	
정보통신기기	저부가품목의 해외이전, 시장성숙과 경쟁심화	

향후 전통 제조업의 대규모 투자확대는 어려울 전망

- 철강업계는 투자패턴 변화와 해외투자 등으로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 신규설비 확충보다는 기존설비의 유지보수, 자동화 등 합리화 투자 위주로 투자가 집행되고, 환경 및 연구개발 투자가 강화될 전망
 - 철강산업의 합리화투자 비중: 15%('96~'00)→ 34.5%('01~'05)⁴⁾
 - 철강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 1.1%('96)→ 3.6%('06)⁵⁾
 - 원료조달 및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투자도 확대
 - 포스코는 인도에서 2011년 초 연간 1,200만톤 규모(세계 3위 규모)의 제철소를 가동할 계획
- 조선업체들은 신규 설비투자보다 신공법개발과 해외공장 건설 등에 치중

⁴⁾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⁵⁾ 上掲書

- 최근 조선경기 호황으로 설비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과거 조선업체들이 대규모로 도크 건설에 나섰던 1996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1990년대 대규모 도크 건설 이후 EU가 덤핑혐의로 WTO에 제소하면서 조선업체들은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추가 도크 건설에 소극적
- 높은 토지매입 비용, 인건비 등으로 국내설비 증설보다 해외에 저부가가치 선박이나 선체 블럭 공장의 증설을 추진

조선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업체	진출 지역	투자내용
현대중공업	중국 푸둥	현지법인 설립
삼성중공업	중국 저장성	블럭공장 운영
대우조선해양	중국 산둥성, 루마니아	블럭공장 신축 중 조선소 운영
현대미포조선	베트남 비나신	수리조선소 운영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 착공
STX조선	중국 랴오닝성	선박부품

자료: 각종 보도자료 종합

- 자동차산업은 1990년대 중반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실시한 이후 R&D와 해외투자 확대에 선회
 - 과잉생산능력 등으로 가동률이 정상수준(80%)을 하회하고, 국내수요 정체와 무역마찰 우려로 대규모 국내 설비증강은 어려울 전망
 - 국내에서는 신차출시에 따른 라인변경, 하이브리드 카와 연료전지차 등과 관련된 R&D 투자에 주력
 - 내수시장 성숙으로 국내 설비 확대에 어려움
 - 대규모 설비투자는 무역마찰과 환율변동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현대차의 해외생산비율이 2004년 20.2%에서 2006년 34.3%로 확대될 예정이나 여전히 도요타(2005년 45.5%) 등 해외업체보다 낮은 수준
- 반도체를 제외한 첨단 전자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도 2000년 이후의 대폭 증가세를 일단락하고 안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도체산업은 최근 수요확대로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03년부터 시작된 D램 시장 수급개선, 낸드플래시 시장 확대, 300mm 웨이퍼라인으로의 공장전환 등으로 투자액이 증대
 - 이동통신과 정보기기의 경우 시장성숙과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
 - PC 모니터 시장은 이미 6~7% 수준의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 휴대폰 시장도 신규수요 감소와 교체주기 장기화 국면 진입
 - 해외생산이 데스크톱 PC와 모니터 등에서 최근에는 노트북 PC와 MP3플레이어 등으로 확산

2. 부각되는 서비스산업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서비스산업

- 제조업 위주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확대
- 한국경제에서 GDP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49.3%⁶⁾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
 - 주요 선진국들에서 서비스산업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향후 투자와 경제성장도 서비스산업의 확대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

⁶⁾ 2004년 경상기준으로,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주요국 서비스 산업 비중(2003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서비스산업 비중	55.8	75.6	73.2	69.6	73.2	70.1

주: OECD 서비스산업 분류기준, 명목 부가가치액 비중

자료: OECD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 신규 고용창출의 해법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찾을 필요

-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높은 편
 - 2000년 기준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10억원 당 24.3명으로 제조업(14.4명/10억 원)을 크게 상회
-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수요확대→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
 - 이에 비해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자동화, 기술개발 등으로 생산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 약화될 가능성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1990	1995	2000
제조업	39.0	21.5	14.4
서비스업	44.6	34.1	24.3

자료: 한국은행,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2003. 12.

서비스 업종별 유망사업군

□ 서비스 업종별로 신규사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

- 의료,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는 선진국 대비 비중이 매우 낮은 업종으로서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 유통의 경우 업계의 영세성을 반영하여 높은 고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음

주요국 서비스 산업 비중(2003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의료	3.0	6.9	6.5	-	7.0	6.6
비즈니스 서비스	5.5	12.5	13.5	7.7	13.9	-
도소매	7.5	12.9	11.8	-	9.5	10.7

주: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기준, 사업서비스는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부문

자료: OECD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 교통·운수, 통신·방송 등 성숙되었거나 이미 상당한 시장 규모를 가진 경우에도 디지털화 및 산업간 융복합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

주요 서비스 업종별 유망사업군

분야	유망 사업
유통	카테고리킬러, 드럭스토어, T-커머스, 오픈마켓
교통·운수	종합물류, 제3자 물류, u-로지스틱스
의료	요양서비스, 대형고급병원, 의료관광, e-헬스, 바이오의료
통신·방송	4G이동통신서비스, 와이브로, IPTV, BcN, 인터랙티브 TV
비즈니스	IT서비스, 엔지니어링, 광고, 컨설팅, 회계·법률서비스, 디자인
문화·관광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 관광, 레저

① 유통산업

□ 국내 유통산업은 유통업체의 대형화·복합화, 유통채널 다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 1993년에 처음 등장한 할인점은 연간 매출규모가 약 24조 원대에 이르는 대표적 유통업체로서 유통산업의 대형화를 선도
 - 최근에는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영화관, 문화센터 등을 결합시켜 복합 쇼핑문화공간으로 변신
-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유통채널의 비중도 확대

유통업태별 매출액

(조 원, %)

	2004	2005	2006	증감률	
				2004→2005	2005→2006
할인점	21.7	24.0	26.8	10.6	11.6
백화점	16.5	16.9	17.8	2.3	5.3
무점포	12.4	13.6	15.4	10.2	12.7
기 타	83.9	85.2	86.7	1.5	1.8
합 계	134.5	139.8	146.7	3.9	5.0

주 : 기타는 통계청 도소매업동태조사 업태분류상 슈퍼마켓·편의점·기타대형점·기타 소매점의 합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 및 전망

□ 할인점, 인터넷 쇼핑, 백화점 등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카테고리 킬러, 드럭스토어, 오픈마켓, T-커머스 등이 등장할 전망

- 새로운 업태로는 카테고리킬러나 드럭스토어가 등장하고, 오픈마켓⁷⁾·T-커머스⁸⁾ 등과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 부상

② 의료서비스 산업

□ 의료산업은 국내 우수인력이 많은데다가, 성형, 외과 등은 한국인의 '손 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2004년 현재 약 40조원의 규모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여력이 큼
-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 4.5%(1991) → 4.9%(1996) → 6.2%(2001)→ 11.4%(2020)⁹⁾

⁷⁾ 기존 B2C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업체는 가상의 판매공간만 제공하고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C2C)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

⁸⁾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즉 TV를 시청하면서 프로그램 중에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주문·검색까지 할 수 있는 쌍방향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의미

⁹⁾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요양서비스, 대형·고급병원, 의료관광, e-Health, 바이오 의료 등이 유망

- 앞으로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풀리면 고급 및 대형병원 등 경쟁력을 가진 병원이 고수익 사업으로 등장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와 해외의 환자를 유치하여 치료와 휴양을 겸하는 의료관광이 각광
 - 태국 병원들은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하여 2004년 11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¹⁰⁾
- 브로드밴드를 활용한 원격의료 등 e-Health와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난치병 치료 등 바이오 의료가 부상
 - 세계 바이오 의료서비스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여 2010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③ 비즈니스 서비스

□ 비즈니스서비스는 성장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내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은 1996~2004년 중 연평균 16% 증가하여, 2004년 현재 57.3조원의 규모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국내 비즈니스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아, 향후 높은 성장 예상
 - 2004년 국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4.76%, 고용 비중은 6.5%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¹⁰⁾ 한류관광세미나,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국관광공사, 2005.12

□ IT서비스, 엔지니어링, 광고, 컨설팅, 회계·법률서비스, 디자인 등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주도

- 특히 SI(System Integration) 등 IT서비스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2006년 한해만도 13조 7천억원으로 예상(전년대비 7% 성장)¹¹⁾
- 컨설팅, 디자인, 그리고 아웃소싱 추세 확산으로 인한 인력파견 등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
- 수직적 분업형 아웃소싱이 점차 수평적 코소싱(Co-sourcing) 개념으
로 발전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

④ 교통·운수

□ 교통·운수는 제조업 성장 및 인터넷 등의 신유통 발달로 성장여력이
높은 편

- 교통운수는 전체 서비스업 수출의 52.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서비스 산업

서비스산업 수지 추이

(억달러)

	2002	2003	2004	2005
총 서비스 수지	-82.0	-74.2	-80.5	-130.9
운수서비스 수지	19.1	35.7	48.7	39.2

자료 : 한국은행, 2005년중 국제 수지 동향, 2006.1.

□ 종합물류산업, 제3자 물류이용 산업, u-로지스틱스 등이 부상할 전망

-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부 중소물류기업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대형의 종합물류기업으로 재편
- 급증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물류기업인 제3자
물류(물류전문기업 활용)가 부각

¹¹⁾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06년도 IT서비스산업 시장 및 기술 전망 세미나”, 2006.1.

-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물류관련 기술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접목된 u-로지스틱스 서비스 등장
- 상품에 부착된 칩을 통해 상품의 위치 추적(RFID),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을 효율화

⑤ 통신·방송서비스

□ 통신·방송서비스 시장은 디지털 기술혁명에 따른 신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

- 한국은 신규 통신서비스의 조기 개시로 IT강국의 위상도 지속
- 정부의 IT839정책에 의해 신 서비스의 조기도입은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 유선통신과 휴대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보급은 한계에 도달하지만, 신규서비스가 기존서비스를 대체할 전망

□ 4G 이동통신서비스, 와이브로, IPTV, BcN, 인터랙티브 TV 등이 유망

-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방송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속
- 중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산업이 부상

⑥ 문화·관광산업

□ 문화·관광산업은 주5일 근무제 정착, 한류 확산 등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

- 고용창출, 국가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도 타산업에 비해 큰 편

- 관광산업에 1억 원 투자시 6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국가이미지 상승 등 간접효과도 발생
- 국내 문화산업은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
- 한류의 확산은 문화·관광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

□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관광, 레저 등이 유망분야로 부상 중

- 온라인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는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초고속통신망, 무선통신망 등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하여 新개념의 콘텐츠도 발전
- IPTV, WiBro 등 신규 미디어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조기에 도입하여 해외 콘텐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 소프트 관광상품과 문화·관광의 인프라 산업도 유망
- 흥행에 성공한 영화·드라마에 대한 촬영지의 관광자원화, 성형-미용-음식,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뷰티관광상품’ 개발 등
- e-Sports 경기장, 뮤지컬 전용관 등의 인프라사업

Ⅲ. 서비스업 투자의 걸림돌과 활성화 방안

□ 서비스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과감한 개방,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

- 의료, 통신·방송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는 진입규제 완화 및 시장기능 도입이 필요
- 유통, 교통·운수, 문화·관광 등 시설입지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입지 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혁
- 전략적 선택에 근거한 개방으로 외자 유치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

- 유통, 비즈니스서비스, 문화·관광 등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수요기반을 확대

국내 서비스 산업의 투자저해요인과 대책

	투자 저해 요인	
유통	입지 규제, 내수 침체 영세성(재래시장)	① 규제 완화(진입장벽 제거)
교통·운수	낮은 생산성, 입지규제	
의료	시장기능 미도입	
통신·방송	이해조정기간 장기화 기존 서비스 시장의 성숙 까다로운 규제	②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부족(아웃소싱 부진) 경쟁력 취약	③ 수요 기반 확충
문화·관광	영세성과 취약한 경쟁력 입지 규제 지적재산권 등 법제도 정비 미흡	

① 규제 완화를 통한 활력 제고

진입 규제 등 핵심규제 상존

□ 국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규제의 수가 많고 세제지원도 미흡

- 서비스산업은 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달리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부작용으로 발전속도가 느린 편
- 의료수가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의료 영리법인의 진입제한 등 인허가 규제, 공공 서비스의 독점구조 등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도 부족

□ 출자총액제한제도¹²⁾ 등도 기존 기업들의 서비스산업 진출을 제한

- 기업간 출자규제는 업종간 진출이나 전략적 제휴를 저해할 가능성
 - 출자나 기업인수는 기존 제조업체가 서비스업 진출 등 새로운 시장을 모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규제완화로 서비스업 발전의 기반 조성

□ 서비스산업 발달을 위해 진입과 퇴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제조업 위주인 기존 대기업집단들이 서비스산업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
 - 대신에 기업 내·외부의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활용
-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허용
 - 현행법은 민간 의료법인에 대하여 비영리 활동만을 허용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기대난
 - 의료수가 자율화와 의료보험의 민영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시장기능을 강화

□ 서비스업종의 토지이용 및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

- 대규모 관광단지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허용으로 투자를 유도
 - 관광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수도권 자연보존권역이 입지에 유리하지만, 사업허용규모가 작아 소규모 난개발 위주
 - 산업 및 생활 물류수요가 높은 도시권의 저지가 지역에 물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
- 규제 및 세제 지원 등에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완화

¹²⁾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출자한도액(순자산의 25%)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연구개발 비용의 손금처리가 적용되는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산업단지 내 전력요금 적용 등을 개선

□ 서비스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

- 바젤Ⅱ가 시행되면, 서비스업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2007년 말 도입될 예정인 바젤Ⅱ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조건을 차등화하도록 규정
 - 서비스업의 경우 물적 자산보다는 기술과 무형 자산에 의존하여 자산 가치 평가가 어렵고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금융자금 확보에 어려움
-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 확대
 - 서비스업체의 기술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강화 등
- 법제도 정비를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
 - 지적재산권의 자산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여 문화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화

②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 과거 한국경제는 수출위주의 산업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낙후
- 서비스업체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 집중
 - 이에 반해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는 0.04%에 불과
 - 서비스업체의 영세성은 투자확대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업체들의 자본구조가 취약하여 투자능력에 한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04년 기준)

(%)

	1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81.9	16.9	0.9	0.2
서비스업	95.4	4.4	0.2	0.04

자료: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사업체 기초통계)

□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은 물론이고 외국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 서비스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
- 서비스부문의 낮은 경쟁력으로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
 - 서비스수지 추이(억불): -28.5('00년)→ -82.0('02년)→ -130.9('05년)

서비스업 생산성의 국제비교

(한국=100)

국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생산성	100.0	216.9	183.2	190.5	198.2

주: 미국은 2001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02년 기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4

대외개방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략적 특화산업과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향상을 고려해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

- 서비스시장이 개방될수록 규제완화, 경쟁 확대, 업체의 대형화 및 기업화, 선진경영 기법 도입 등으로 경쟁력은 강화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짐
 - 비즈니스 서비스분야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방과 선진경영 기법 도입이 필수적

-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감안,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육성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투자를 유치

□ 특히 FTA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

-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비스부문이 주도
 - 세계 외국인투자 유치 중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50.5%(1989~91년)에서 66.0%(2000~04년)로 확대¹³⁾
 - 반면, 한국은 동기간 중 51.9%에서 57.1%로 증가하는데 그침

③ 수요 기반 확충

준조세, 사교육비 부담 등이 소비여력 확대를 제한

□ 현재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수요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

- 과중한 준조세, 높은 사교육비 부담, 노후불안 등이 대표적 요인
 -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못하면, 향후 한국경제의 수요확대는 제한적

□ 준조세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비중 확대로 소비여력이 축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피용자보수¹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0%에서 2004년 9.6%로 확대
 - 국민연금 납부액은 2005년 18.5조원으로 1995년(4.0조원)의 5배에 육박
 -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2004년 15.6조원으로 1995년(3.6조원)의 4배 이상을 기록

□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 노후불안감 등도 서비스 수요 확대의 걸림돌

¹³⁾ 대한상공회의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방향과 과제”, 2005.11.

¹⁴⁾ 피용자보수는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 국민총소득 + 명목 국외순수취경상이전소득)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의미

- 사교육비는 2001년 10.7조원에서 2003년 13.6조원으로 27.1% 증가¹⁵⁾
 - 과외받는 학생비율도 58.2%('00년)에서 72.6%('03년)로 확대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규모도 2003년 현재 285.7만 원 수준
-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면서 노후불안감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현재소비를 줄여서 노후에 대비
 -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조사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86.5%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노후 대비로 저축

준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대

□ 서비스산업은 비교역부문 위주로 수요기반 확대가 중요

- 가계버블 붕괴의 여파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서비스산업도 둔화
 - 버블 붕괴로 2003~04년 중 민간소비는 장기 추세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성장률도 2001~02년 중 연평균 7.7%에서 2003~04년에는 연평균 0.8%로 크게 하락¹⁶⁾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요기반 확대

-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불안감 해소
 - 저부담-고혜택의 기형적인 수급구조를 시정하고, 납부의 강제성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공적연금 위주에서 탈피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
-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노후불안감 해소
 - 노인들의 축적된 지식, 경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 활용해 청년층과 노인층의 역할을 조정

¹⁵⁾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4.2.17

¹⁶⁾ 통계청, 서비스업 활동동향 각호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3. 7.	3. 8.	3. 9.	3. 10.	3. 1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76.6	982.1	982.2	980.2	980.0
	엔/달러(뉴욕시장)	117.61	117.75	117.78	118.22	118.93
금리	회사채(3년AA-, %)	5.46	5.41	5.33	5.28	5.33
	국고채(3년, %)	5.05	5.01	4.93	4.88	4.94
주가지수(KOSPI, 종가)	1,316.67	1,314.05	1,311.21	1,320.07	1,338.28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10월	11월	12월	2006.1월	2월
GDP성장률 ¹⁾	4.6	4.0	..	5.2
민간소비	-0.5	3.2	..	4.6
설비투자	3.8	5.1	..	9.8
산업생산	10.2	6.3	8.0	11.8	11.3	6.4	..
평균가동률	80.4	79.8	79.0	82.1	79.4	83.6	..
실업률	3.7	3.7	3.6	3.3	3.5	3.7	..
실업자(만명)	86.0	88.7	87.0	78.5	82.7	86.9	..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6	0.03	0.02	0.02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7	2.5	2.4	2.6	2.8	2.3
수출(억달러, FOB) ²⁾	2,538.5	2,844.2	253.5	258.3	256.3	233.1	239.6
(증감률)	(31.0)	(12.0)	(11.9)	(11.9)	(10.5)	(3.8)	(17.4)
수입(억달러, CIF)	2,244.6	2,612.4	226.5	238.5	241.9	228.1	234.2
(증감률)	(25.5)	(16.4)	(11.0)	(17.4)	(16.4)	(17.3)	(27.3)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26.9	22.0	5.4	1.4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073.1	2,082.3	2,103.9	2,169.3	2,159.5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723

1) 2005년 11월 수치는 2005년 4/4분기 자료.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 작성.